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Los Angeles www.joongangusa.com · (213)368-2500

Friday, December 23, 2005 Section-A

일본 강제징용 소송 정재원씨 타계

일본의 오노다 시멘트(현 다이헤이오)를 상대로 강제 징용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정재원(사진)씨가 지난 21일 새벽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83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중앙고등학교와 일본 호세이대학을 졸업한 고인은 일제의 학병징집을 거부하다 강제 징용돼 지난 1944년 2월부터 해방직전까지 함경남도 문천군 소재 오노다 시멘트 공장에서 노역했었다.

해방 후 인천고와 경기고 등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평교사로 헌신했던 고인은 86년 정년퇴임하고 87년 도미, 노인학교 영어교사로 일하기도 했다.

지난 99년에는 징용배상 특별법(헤이든법)에 의거해 한인 징용자들을 대표, 오노다 시멘트를 상대로 제기됐던

손배소송에 원고로 참여했다.

고인은 생전에 “소송에서 승소하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역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차원에서 기꺼이 원고로 참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소송은 올해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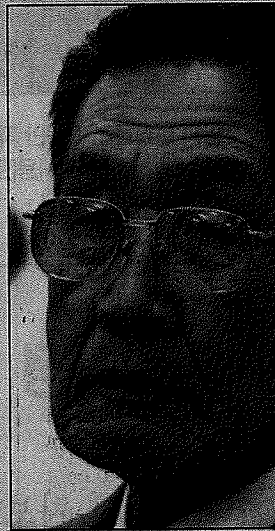
오노다 시멘트 회사에

한국인 징용 책임 물어

연방대법원의 기각결정으로 어렵게 종결됐다.

고인의 사위인 정병위씨는 “교육자였던 장인 어른은 정결결백했고 자식 사랑이 각별했으며 일본 정부의 강렬한 로비로 손배소송이 난관에 부딪히자 이를 매우 안타까워했다”고 추모했다.

바른역사를 위한 정의연대의 정연진 회장은 “선배같이 고고하신 분이라 늘 마음 속으



로 존경해 왔다”며 “소송이 종결되고 나서 뱃지를 못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게 돼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고인의 유가족으로는 동수·동주·희선·성훈씨 등 2남2녀가 있다.

한편 일관예배와 영결예배는 각각 23일 오후 6시와 24일 오전 9시 한국장의사에서 엄수된다. 장지는 할리우드 포리스트론.

▷연락: (310)892-7135

노세희 기자

일본 강제징용 소송 정재원씨 타계



일본의 오노다 시멘트(현 다이헤이오)를 상대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정재원(사진)씨가 지난 21일 새벽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83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중앙고등학교와 일본 호세이대학을 졸업한 고인은 일제의 학병징집을 거부하다 강제징용돼 지난 1944년 2월부터 해방직전까지 함경남도 문천군 소재 오노다 시멘트 공장에서 노역했었다.

해방 후 인천고와 경기고 등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평교사로 헌신했던 고인은 86년 정년퇴임하고 87년 도미 노인학교 영어교사로 일하기도 했다.

지난 99년에는 징용배상 특별법(헤이든법)에 의거해 한인 징용자들을 대표 오노다 시멘트를 상대로 제기됐던 손해배상 소송에 원고로 참여했다.

고인은 생전에 "소송에서 승소하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역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차원에서 기꺼이 원고로 참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소송은 올해 1월 연방대법원의 기각결정으로 아쉽게 종결됐다.

고인의 사위인 정병위씨는 "교육자였던 장인 어른은 청렴결백했고 자식 사랑이 각별했으며 일본 정부의 강력한 로비로 손해배상 소송이 난관에 부딪치자 이를 매우 안타까워 했다"고 추모했다.

바른역사를 위한 정의연대의 정연진 회장은 "선비같이 고고하신 분이라 늘 마음 속으로 존경해 왔다"며 "소송이 종결되고 나서 뵈지를 못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게 돼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고인의 유가족으로는 동수, 동주, 희선, 성훈씨 등 2남2녀가 있다.

한편 입관예배와 영결예배는 각각 23일 오후 6시와 24일 오전 9시 한국장의사에서 엄수된다. 장지는 할리우드 포리스트론.

▷연락: (310)892-7135

노세희 기자